

# “한-아세안 ‘기억의연대’...선열 뜻 이어 행복시대를”

### 시·도,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광복 의미·애국선열 뜻 기려 강 시장 “AI·문화도시로 기여” 김 지사 “세계 주목하는 전남”

광주와 전남도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광주시는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식민통치의 같은 아픔을 가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연대를 강조하고, 광주의 자산인 문화예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을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복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이자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에 평화가 시작된 날이다”며 “지난 세기 제국주의의

거대한 힘과 싸워 독립을 쟁취했던 한국과 아세안 여러 나라들은 ‘기억의연대’를 이뤘고, 그 기억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공동의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선언한 것도 공동의 자산을 키워 협력하겠다는 다짐이었다”며 “문화예술은 더 넓은 세계와 교류할 기회이다. 광주는 문화예술을 통해 기억의 연대를 ‘한-아시아 평화·번영의 공동체’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가진 독보적인 자산으로 △한-아시아 문화교류의 독보적인 플랫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5회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 △유네스코가 인정 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세계인권도시 포럼과 광주인권상 등을 통한 아시아와 꾸준한 소통·연대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기반시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GCC사관학교 등을 갖춘 도시임을 언급했다.

강 시장은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조성사업 등 ‘예향의

DNA’를 담아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일상을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으로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ACC, 광주비엔날레, 송암동 콘텐츠밸리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를 기술과 연결해 문화산업을 키우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독립유공 포상자로 선정되고 황성규 선생님과 나라사랑 유공 포상을 받은 김전식, 양승빈, 고영철씨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고옥 광복회시지부장,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박균택 국회의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 정다운·최지현·명진·이명노·홍기월·임미란·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광주에서 살고 있는 아세안 주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을 초청했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되찾은 대한의 빛, 이어갈 전남의 빛’이란 주제로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세계 속에 빛나는 전남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경축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으로, 광복회 기념사, 경축사, 기념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포상에선 △고 나치구님의 손자 나대현 △고 이연우님의 딸 이정옥 △고 전우생님의 딸 전길자씨가 대통령 표창을 전수받았으며, 광복회 △김은숙 △오광용 △한봉희씨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기념공연은 시 낭송, 무용, 합창으로 구성해 광복의 염원과 환희,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며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특히 심훈의 ‘그날이 오면’을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소속이자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최세빈

이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복을 이뤄낸 선열들의 굳은 의지와 용기가 대한민국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들의 고귀한 뜻을 본받아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청 윤선도홀(1층 로비)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나는 독립투사’ 특별전시가 열려, 독립투사들의 생생한 눈빛과 표정, 음성 등을 통해 그들이 품었던 나라사랑 정신과 굳은 의지를 다시금 일깨워줘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자체 발굴해 서훈 신청을 했다. 2025년까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2027년까지 ‘전남 독립운동사’를 편찬해 ‘대한민국 의향 1번지 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 “청렴도 제고” 광주시, ‘달라진 청렴시책’ 추진

###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논의

광주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나선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간부 공직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열었다.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는 시장 주재 회의로, 청렴시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진단 추진계획 △공감과 평등의 조직문화와 청렴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청렴주간 청바지데이’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또 시장과 공직자들이 직접 제작·출연한 청렴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즐겁고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 전반 및 부서별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의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을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를 주제로 ‘청바지데이’를 운영한다.

이 기간 청바지 입고 출근하기, 청렴캠페인,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바지 착용 인증샷 콘테스트,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이 출연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제의 청렴동영상 제작 △간부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중요한 건 청렴한 마음’ 청렴레터 공유 △신고자 익명 보장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열목어가 사는 세상’ 개설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콘텐츠 운영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정이 곧 청렴이다. 공정한 위치에서 공정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명심해 달라”며 “공직자들이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조직문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와 간부공직자들이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동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임택 광주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과 의원, 신경구 동구 인권위 위원장, 해남 서정초등학교 등이 지난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공원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고 평화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시,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한다

### 대출이자 1년 최대 200만원 2년간 “청년 주거자립기반 지원정책 추진”

광주시가 올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주택청년 100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https://www.gwangju.go.kr/youth/>)-주거-주거비 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순숙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전남도, 청사 도감청·몰래카메라 집중 점검

### 탐지기술 활용 불법정보 유출 방지

전남도는 지난 14일 민원인 사생활 보호와 청사 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불법 도감청 탐지 및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대적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곳과 서재필실 등 주요 회의실,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민원실, 안내데스크 등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감청은 승인 없이 타인의 대화를 엿듣는 범죄행위다. 개인 사생활과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청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오갈 가능성이 높아 도감청 방지는 필

수다. 점검은 통신보안업체의 전문 도감탐지팀이 투입돼 최신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하게 이뤄졌다. 탐지팀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전자기장 탐지기, 적외선 카메라 등 다양한 탐지 장비를 사용해 몰래카메라나 도청기와 같은 승인받지 않은 무선 송수신기기의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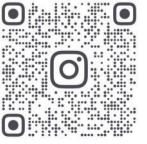
전남도는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도감청 장치도 첨단화, 소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 보안점검을 통해 도감청과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의 프라이버시와 중요한 행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mailto:jebo@jinilbo.com)